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화훼농가 돕기 동참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가운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롯데건설은 캠페인을 맞아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대구 및 경북 지역 현장 근무자에게 전달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 대구 C/S센터 근무자들이 꽃다발과 공기정화 식물이 담긴 화분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건설

NH농협銀 전물군경미망인회에 기부금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 위치한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를 찾아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마케팅부문 함용문 부행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유가족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후원과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미망인회 기부금 전달 외에도 '끝까지 찾아야 할 대극기 122609' 배지 달기 캠페인 동참, '감사 그리고 기억' 정기예금 상품 출시, 참전 유공자 사랑의 집 고쳐 드리기 등 6·25



NH농협은행 함용문 부행장(왼쪽)이 강길자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회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은행

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을 위한 공익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

중진공, 수출 물류지원 희망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가기업을 7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상시 할인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활용 등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을 하고 있거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중기부와 중진공은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물류비 상시 할인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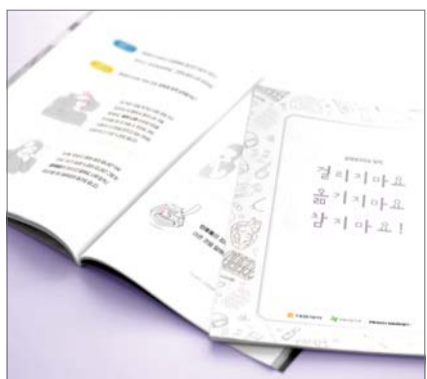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위한 감염병 예방 도서 배포

대웅제약 '참지마요 프로젝트' 눈높이 맞게 쉬운 글·그림 설명

대웅제약은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지마요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쉬운 글 도서를 제작(사진)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지마요 프로젝트 '감염병 예방' 쉬운 글 도서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부터 감염병에 대한 이해, 손 씻기, 마스크 사용 등의 예방법, 그리고 감염 시 행동요령 수칙에 대한 설명을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질의응답 형태의 설명과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대웅제약은 '감염병 예방' 쉬운 글 도



서 500권을 참지마요 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특수 학교 또는 특수 학교,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 배포했다.

'감염병 예방' 쉬운 글 도서 제작에는 참지마요 프로젝트 2기 대학생 교육 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지난 3월부터 제작에 참여해 도서 기획, 자료 수집부터 글·삽화 작업까지 직접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시작 전부터 잡음 휩싸인 '제주비엔날레'



홍경안의 시사일각

'제주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제주도립미술관 관장이 선임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 지난 2018년 말. 예정대로라면 제2회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은 몇 번에 걸쳐 2017년 첫 회를 마친 제주비엔날레의 2019년 개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당시 전문가들 중 일부는 확보된 예산의 불충분함과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제주비엔날레의 2019년 개최는 쉽지 않다는 견해를 냈다. 운영 미숙과 '졸속' 논란으로 막을 내린 제1회 행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역량부터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반면 한쪽에선 비엔날레란 이탈리아 어로 '2년마다'란 뜻을 가진 국제예술 행사라는 점을 들어 원래대로 2019년 개최하는 게 합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룬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힘들더라도 비엔날레 고유의 의미를 고수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이었다. 필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제2회 제주비엔날레는 해를 넘겨 2020년 5월로 미뤄졌다. 하나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후 무려 3번이나 더 물러졌다. 처음엔 을

해 5월 개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가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6월로 순연됐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8월로 연기됐다. 이어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행사는 내년 5월 개막으로 또 다시 늦춰졌다. 재탕 전시, 혈세 낭비라는 오명 속에 폐막한 제1회에 이어 제2회는 아예 날갯짓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제주비엔날레는 최근 자증지란까지 겪고 있어 이래저래 보기 딱한 상황에 놓였다. 행사의 주축인 예술감독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주관기관인 제주도립미술관의 월권 및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하자 도립미술관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감독의 감사 요청 사항에는 자문위원회를 통한 미술관의 특정 작가 배제 강요 등을 비롯한 미술관의 갑질 의혹 외, 2차 용역업체의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감독 및 전시 팀 인력의 1~3월 급여 미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립미술관 최정주 관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예술감독팀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자의적 해석이 많이 섞여 있다"고 반박하며 "문제 제기 사안들은 감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문제는 내부 혼란의 틈에서 애꿎은 작가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시 참여가 예정된 작가들은

연거푸 미뤄지는 행사로 인해 불안정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성은 제주도립미술관과 감독 간 내용이 표면화되면서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기에 전시환경이 바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데다, 지금까지 미술관과 감독만 믿고 진행한 작업에 대한 보상까지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탓이다.

이에 일부 작가들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 논의 없는 일정 연기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작가 지위 불안정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전시팀 간 소통 부재에 관한 문제 제기과 더불어 주관기관의 대책 마련 및 후속 조치, 작가들의 향후 비엔날레 참여 보장을 포함한 기존 진행 작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1995년 프리(pre) 비엔날레를 열었지만 비엔날레로 이어지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는 제주 작가들의 입장에서 선졸지에 올림처럼 4년 만에 열리는 행사가 된 제주비엔날레를 보는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다.

특히 1회는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회는 시작 전부터 잡음에 휩싸이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국제 미술행사가 되길 기대한 미술계 역시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움에 비례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원희룡 도지사의 '문화예술의 섬' 구상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미술평론가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코로나 종식 기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위기 극복 적극 동참 메시지

롯데홈쇼핑은 이완신 대표가 지난 15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손 씻는 로고와 함께 'Stay Strong'이라는 문구를 적어 개인 위생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김영훈 의무부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롯데홈쇼핑

여하게 됐다. '롯데홈쇼핑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롯데홈쇼핑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 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며, "롯데홈쇼핑은 코로나19로 일상화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디어와 쇼핑이 융합된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인사

- ◆아시아기자협회 △대의협력팀장 송재걸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겸 의약식품대학원장 김하형
- ◆하나투어 ◇본부장 △디지털전략본부 이원경 △공급(MD)본부 류창호 △상품기획(MD)본부 김창훈 △IT본부 박영학 △대리점판매본부 육경진 △경영기획본부 김혁진 △재무본부 조경훈 △법인사업본부 과민수 △콜센터 김진환

- ◆중앙그룹 ◇중앙일보플러스 ▲대학평가위원장 양선희 ◇JTBC미디어룸 ▲광고마케팅3팀장 이지연

부음

- ▲김중욱씨 별세, 김동환(포스코플랜텍)씨 부친상, 공용진(네이처이엔티 이사)·박기현씨 장인상 = 16일 오전 6시 10분, 경북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 054-260-8048

- ▲이순금씨 별세, 류지영(전 국회의원)·류창원·류창희·류경희·류정선·류일선씨 모친상 = 16일 오전 5시 49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대구 동구 도림사. ☎ 02-2072-2022

- ▲정은숙씨 별세, 향년 85세, 정주화(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장)씨 모친상=발인 18일 오전 8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병원 장례식장 특실, 장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 천주교 묘지. ☎ 010-2730-4548